

한 때 배우의 꿈 꾸었다면... 무대로 나오세요

제 1회 광주시민연극제 13~18일 빛고을극악전수관

‘연극의 발견’ 주제로 주부·학생 등 6개 주민극단 참여

“나도 한 때 꿈이 배우였는데...”
 흑시, 젊은 시절 꿈을 잊지 못해 연극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들러볼 만한 행사가 있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서구 빛고을극악전수관에서 ‘연극의 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제 1회 주최하는 이번 축제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6개 주민극단이 참여한다. 주부, 회사원, 학생 등 아마추어 배우들이 펼치는 소박한 무대로 연극을 보고 나면 “나도 한번”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 프로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지역 문화 생태계는 더욱 탄탄해진다. 그런 점에서 주민극단들의 움직임은 의미있는 행보다.

2012년 서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주민극단 ‘정거장’은 연출가 김종필씨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 오전 함께 모여 연습한다. 20~70대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단원들은 “한번쯤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들이다. 지금까지 정기 공연작으로 ‘행진사대 경사’와 양태훈씨의 창작극 ‘흥부가 기가 막혀’를 무대에 올렸다.

직장을 다니며 배우로도 활동했던 김씨

는 주변에 의뢰로 연극을 하고 싶은 이들이 많은 걸 알고 10여년 전 직장인 극단 DL을 창단, 지도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남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극단 ‘술’도 운영중이다. 단원들은 매주 한차례(금요일) 양림사회복지관에서 연습하고 있다.

‘술’은 이번 축제에서 ‘흥부가 기가 막혀’(13일 오후 7시)를 공연한다. 유기견 강아지가 어느날 흥보 가족에게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고, 사연 많은 자식들은 돈에 눈에 어두워 좌충우돌한다. 김종필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소우·장유정·양현주·강지훈·김미경씨 등이 출연한다.

주민 극단 ‘연극 여행’과 ‘정거장’은 같은 작품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 ‘재채기’, ‘가정교사’, ‘치과의사’ 등 옴니버스로 꾸며진 날 사이먼의 대표작 ‘굿닥터’다.

‘연극 여행’(14일 오후 4시)의 작품은 한 중년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오주섭·이순남·배선주·김주열씨 등이 출연한다. ‘술’의 ‘굿닥터’(18일 오후 7시)는 김종필씨 연출로 강민, 신미경, 이우유, 황현숙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연극 배우 이현기(연우랑 대표)씨가 연출한 ‘화사한 마을 극단’의 ‘이수일과 심



순애’(17일 오후 7시)에는 번사 역의 이명화씨를 비롯해 반정미·임승숙·조판조씨 등이 출연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공연도 펼쳐진다. 주민 극단 ‘별술’의 ‘늑대와 아

기 돼지’(16일 오후 2시), 색동희 소속 ‘색동각시’의 ‘삼년 고개’(16일 오후 3시)가 어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석 무료. 문의 062-681-41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화작가 윤삼현 정년문집 ‘시간의 발소리...’ 펴내

“교단 41년·문단 33년

열정은 멈추지 않았죠”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시·동화 당선

광주일보 문학회장 역임도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동시와 동화를 썼다.

1982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뽕튀기’, 1983년 동시 ‘달이 그린 수채화’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과 ‘문학’의 두 길을 걷게 된다.

“교단 41년, 문단 33년 세월이 눈 깜짝할 새 흘러가버렸습니다. 교단에서 문단에서 보다 뜨거운 에너지를 싣기 쏟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윤삼현(63) 교사가 정년문집 ‘시간의 발소리에 귀를 깨우며’(한림)를 펴냈다.

이번 정년문집에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대표작’, ‘서간문모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자의 지나온 삶과 문학 행보를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아동 문학가 박해련 씨의 표지와 서예가 이주옥 씨의 제목 글씨도 눈길을 끈다.

해남 출신인 윤 작가는 20대 초 교육대학에 입학해 ‘나는 스승의 길을 자부한다’는 다짐으로 지난 40여 년의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교육자를 많이 배출한 집안의 영향으로 교직을 선택했다”며 “돌아보면 내 인생은 교육과 문학의 두 바퀴를 굴리며 나뉠 것 같아 기쁘고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윤 작가의 글쓰기는 학교 현장에서 발아되고 꽃을 피웠다. 지난 1977년 광주교대를 졸업한 첫해 고향 해남 북평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문예반 지도를 하는 동안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동시와 동화를 썼다. 1982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뽕튀기’, 1983년 동시 ‘달이 그린 수채화’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과 ‘문학’의 두 길을 걷게 된다. 이후 1988년에는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달을 타고 온 동이’가 당선되었고 이듬해 1989년 동시와 동화 두 부문에 걸쳐 창작활동을 병행한다.

광주일보 문학회장(2010~2012)을 역임한 바 있는 윤 작가는 ‘철마와 속녀’로 2013년 제9회 광주일보문학상(광일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문학 활성화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독서 토론, 편지 쓰기, 시낭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광주교대 아동문학과 겸임교수와 생오지문예창작대학 교수로 창작과 후진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간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바심하며 살아왔어요. 빛만 보고 살아온 인생, 이제 여생을 더욱 소중히 더불어 교감하며 보람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고의 작품은 아직 씌여지지 않았으므로 붓끝 또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다문화 M오케스트라 ‘멀티 힐링 페스티벌’



목포 광명원 핸드벨연주단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엄마, 아빠, 자녀들로 구성된 다문화 M오케스트라(단장 김유정)가 8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멀티 힐링 페스티벌’ 공연을 갖는다.

광주여성필 김유정 단장이 총기획과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에서 다문화 M오케스트라는 브라스 ‘헝가리안 댄스 제5번’, 요한 슈트라우스 ‘아름답고 푸

른 도나우강’, 소스타코비치 ‘재즈왈츠 제2번’, ‘사운드 오브 뮤직’을 들려주며 소프라노 김미옥씨는 ‘그리운 금강산’과 ‘넬라 판타지아’를 선사한다.

또 7개국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아시아 소리모아합창단(지휘 박현주)은 돈 베지그의 ‘내 마음에 음악 있네’와 ‘아시아 민요모음’을 들려주고 시각장애 아이들로 구성된 목포 광명원 핸드벨연주단은 하수미 지휘로 ‘오 솔레미오’

‘희망의 속삭임’ 등의 곡으로 감동을 준다. 또 S.C 싱어즈는 ‘행복을 주는사람’ ‘우리들은 미남이다’를 연주한다.

다문화 M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부터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재능기부로 매주 무료 레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현악기협회는 관현악기를 무료로 협찬하고 있다.

문의 010-3625-51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캐리커처를 통해본

프랑스혁명’ 강의

10일 상록전시관 세미나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오는 10일 2015 상록인문학강좌 마지막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를 백인호 서강대 사학과 교수를 초청해 ‘캐리커처를 통해 본 프랑스혁명’을 주제로 진행한다.

백 교수는 풍자적인 캐리커처를 통해 자유, 평등, 인권을 내세우며 서구 여러 나라의 혁명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온 프랑스혁명을 설명한다.

백 교수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낭뜨대학교 역사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파리1대학 프랑스혁명사연구소 대학원에서 사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 ‘창과 십자가 : 프랑스혁명과 종교’ 등 다양한 책과 논문을 발표했다. 문의 062-613-71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 초·중·고교 20개교

교과 국악 반주로 바꾼다

전남문화재단 최종 선정

전남지역 초·중·고교 20개교 학생들이 군가나 행진곡등의 교가에서 벗어나 국악반주에 맞춰 교가를 부르게 됐다.

3일 전남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국악반주교가 제작·보급 사업’으로 20개 전남지역 초중고교가 국악반주 교가를 제작했다.

모두 140개교가 국악반주교가 제작을 희망했으나, 20개교만 선정됐다. 일제 강점기에 개교한 곳을 비롯해 개선이 시급한 교가를 부르는 학교다.

국악반주교가 녹음에는 전남도립국악단이 참여했으며, 오는 5일까지 음반제작 작업이 마무리된다. 학생들은 오는 12월15일에는 국악반주교가 제작발표회를 연다.

‘국악반주교가 제작 보급 사업’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국악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교가를 국악풍으로 새롭게 편곡해 보급하는 사업으로 문예재단이 2012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2012년 시범사업으로 9개교가 국악반주교가를 제작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모두 45개교가 교가를 국악풍으로 바꿨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 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 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 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30504	주택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20736	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886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886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886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 1036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 10367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30627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5타경 1428	공장
전주지방법원	2015타경 3629	공장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30627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 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 매입, 중개, 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